

## 제 9 편 島外 面民 民史



## 제1장 在京牛島面民會

섬중의 섬, 우리 우도 사람들은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옛부터 본도 또는 육지로 진출해 지리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보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연유의식(連陸意識) 내지 진취정신이 남달리 강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주민의식은 주로 해녀들의 출가(山嫁)활동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주로 동서 남해안의 수산물이 풍부한 도서지방 및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멀리는 일본, 중국 대륙에 까지도 진출해왔다. 특히 부산지역에 많은 우도인들이 정착, 남해안의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수산 해운 및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들 중 일부는 한국동란이후 정부의 환도와 더불어 그들의 활동무대를 서울로까지 넓히게 된다. 당시 민주여론(잡지)사를 운영하던 高泰萬이나 동아일보 기자(종군 기자, 광문점 특파원)로 재직했던 金景向, 회사원이었던 金乃煥, 任炳洙의원의 비서관에서 대한석탄공사로 자리를 옮긴 金斗英, 그리고 자동차부품판매업계에 종사하던 高哲煥 등이 그들이다.

특히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공업화, 도시화의 사회변화의 추세와 맞물려 도시에 가서 산다는 것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기대를 갖게 했으며 여기에서 특히 서울은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알다시피 수도 서울은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매력과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면민들의 서울 생활은 일찍부터 그 외 연관성이 있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 면민들이, 그리고 누가 최초로 서울에 정착해 살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아는 바 없다. 흔히 공부하러 올라와 학업을 마치고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 살게 되었듯이 우리 면민들의 서울 정착도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韓完俊 어른(85세, 삼양동)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우도사람으로서 서울에서 제일 처음으로 학창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申才弘(천진동)이다. 당시 그는 하숙을 치던 고모댁에 기식하면서 그 아들 우보현(전홀동)씨와 함께 야학을 했다. 그리고 보면 보현씨 모자를 비롯한 그들이 서울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후 高俊華(하우복동)가 보성전문학교(고려대 전신)에 다녔는데 서울 유학생으로는 그가 처음일 것 같다. 자신도 역시 1910년 무렵에 중앙중학교(5년제)에 다녔는데 그들은 내게 정신적으로 큰 의지가 되었다.”

그 밖에 孔德奉, 高基行(이상 비양동) 尹大弘(삼양동) 등이 상경해 교학을 했다.”

유학생들의 서울 생활은 6·25를 전후해 孔春植(비양동)이 균명중학, 韓文弼이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학으로 이어진다. 60년대에 이르러서는 金金奉(서울대 법대), 李淳珩(고려대 대학원 교육학과), 김동현(서울대 공대 원자력공학과), 우상범(서울대 문리대 화학과) 등이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는 高忠錫(연세대 행정학과) 등으로 그 뒤를 잇게 되고 오늘날도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6·25 이후의 면민들의 서울 진출은 또다른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환도와 더불어 서울로 옮긴 면민들의 이주생활이 그것이다. 특히 「인물계」 잡지를 간행, 「한국인물사」 편찬, 공명당총재 등을 역임하던 高泰萬, 동아일보(7년), 자유신문(3년)기자 등 김경향의 10여년의 서울생활은 친인척이나 휴가군인 등 향리 주민들에게 좋은 기식처를 제공해 주었고 이같이 면민들의 서울출입이 많아지면서 서울정착에의 기저가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0년대에 이르게 되면 적지 않은 면민들이 서울 정착이 활발히 이루어 高德煥이 제대후 고교교사로 재직하게 되고, 59년에는 高哲煥(삼원상사 사장)이 상경 자동차부품상을, 金斗英이 대한석탄공사에, 고용호가 화학약품 회사에, 金恒時가 제대후 비군부대에 근무하게 된 일들이 그것이다. 69년에는

오영종(법무사)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과장으로, 金乃煥이 인쇄업에, 전상구가 건축업계(현대건설)에서, 70년대에는 한재덕 등이 상경, 각기 자기 분야를 개척하면서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드디어 면민회 모임이 이루어 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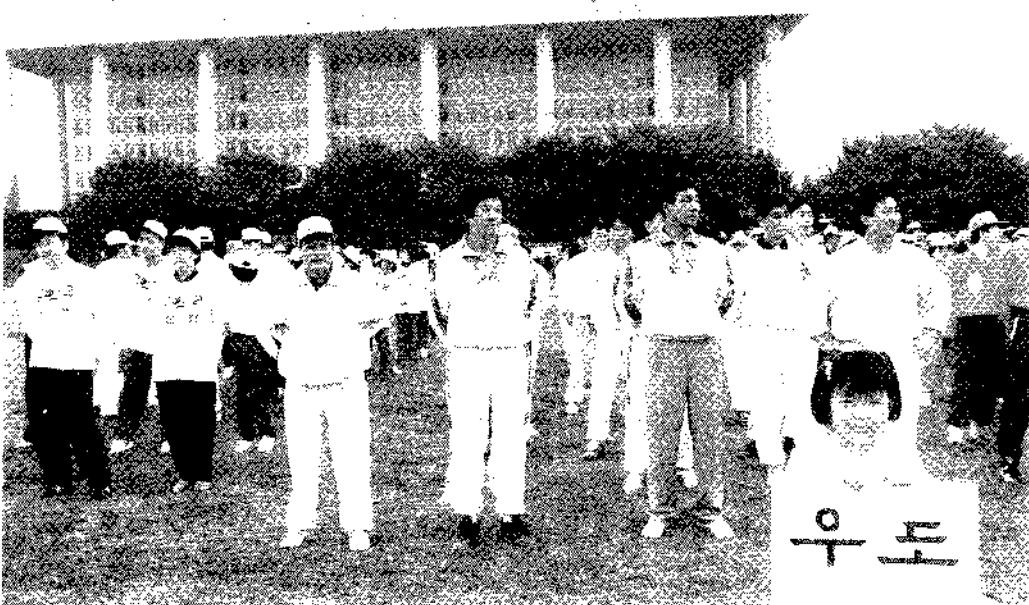
그리하여 1986년 고향의 면승격은 이들에게 새롭게 면민의식과 긍지를 자극함으로써 89년에 비로소 재경우도면민회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초대회장에 고덕환, 그리고 고계화, 윤내환 등이 부회장을 맡아 초창기 면민회 기틀이 다져졌고 김두영(회장), 전상구, 한재덕(부회장) 등 모두가 각기 회장단을 맡아 면민회를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현재까지 金斗英회장(2~4대)을 중심으로 70여세대 100여명의 면민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면민회는 일년에 네번 정기적으로 집회를 갖는다. 서로 애환을 나누며 상호 협력해 나가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면민회 조직을 보면, 김두영 회장 밑에 고철환(수석), 윤석만(재무), 이안태(조직), 강두화(섭외), 여대현(사업), 홍신길(체육), 김광자(부녀), 우영범(지역담당) 등이 부회장으로, 전상구를 간사장으로 총수 강광일, 조직 공기정, 섭외 김부성, 사업 김진봉, 체육 고철수, 청년 고경환, 부녀부에 고복란 등이 각기 간사를 맡아 면민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모든 회원들이 각기 자기분야에서 충실히 살아 나가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특히 교육계에서 고덕환(중화고), 강광일(서울여상), 김개국(원주전문대), 실업계에서 김두영(장원건설회장), 전상구, 강두화(현대건설 중기사무과장), 윤석만(현대건설 상무이사), 홍신길 등이 건설업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가운데 우상훈(한라실업), 공기백(동안석재), 오광희(택시운송사업조합), 한재덕(부동산업) 등이 각기 자기분야에서 성공, 면민회의 증추가 되고 있다.

앞으로 면민 모두의 밝은 미래 및 서울시민으로서의 성공적인 생활이 크게 기대된다.





## 제2장 在釜牛島面民의 定着史

### 時代別 定着記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섬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陸地를 동경하였고, 또 그곳에서 나래를 펴고 싶었던 것이 事實이었으며, 農耕社會에서 產業社會로 전환된 現世代에서는 더욱 그러한지도 모르겠다.

故鄉을 등지고 他鄉에서 고군분투하며 自身의 꿈을 이루고 故鄉을 찾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향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여기서 오히려 고향에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스런 사람들은 고향을 찾기가 더 힘들어졌고, 꿈을 이룬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뛸 하나라는 現實앞에서 제2의 고향이 되어 在釜우도면민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時代的 배경을 토대로 우도인이 어떻게 부산에 정착하였는가를 整理 해야만 될 것 같다.

러·일전쟁 당시(1904~1905년) 日本이 승리하고 포츠마스 조약체결로 日本이 조선에 대한 우위권 확보와 국권침탈이 本格化되던 그 時點에서 牛島氏 서광리 출신 金河錫氏가 '牛目끼'에서 결혼을 하였으나 1년여 만에 夫人과 死別하고 우뭇가사리를 신고 가는 이름모를 범선에 몸을 맡긴 것이 釜山에 도착이 되었다고 한다. 생계 수단의 고생이야 表現을 다할 수 없겠지만 지금 부산시청 자리가 해초류와 생선, 건어물 등을 팔고 사는 전형적인 한국적 市場이라 했으니 아

주 오랜 옛날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후 그는 1910년 한·일합방이 되던 이듬해에 현재 부산시 중앙동 1가 21번지에 東亞物產(천초·미역·생선류 위탁판매업)과 제주여관을 경영하며 그 당시 부산과 제주를 잇는 永福丸, 昌福丸의 선표 취급점과 일부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였다. 그 배들은 1회는 제주시 한림쪽으로 운항하였고 차회는 서귀포, 성산포쪽으로 항해하다 우도의 산호 백사장 앞에서 우뭇가사리를 싣고 가기도 했다.

역시 사업의 기반은 世界의 名山 우도産 우뭇가사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렇다면 해방이 되고 난 직후 대일무역(?)의 수집상 내지는 위탁판매업으로 成長되었음이 틀림은 아닌상 싶다.

한편으로는 그 천초의 物量 확보를 爲해서는 우도산, 제주산 하다가 慶北產으로까지 늘려야만 하기에 人力이 不足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 타개책으로 항일운동의 항일가를 부르던 그 牛島出身들의 海女와 인근 終達·下道 等의 해녀들도 부산, 경북의 해산물 채취 성수기에만 왕래를 하다 한두 사람의 정착이 始初가 될 수 있겠으며, 그 외도 있음은 부인을 못할 것 같다.

1913년경에는 오봉리 出身 韓君玉氏의 부친이 影島서바리(현재 東三洞 해안가)에 정착하면서 海女事業을 하면서 차츰 人口가 증가되었고, 1925년 경에는 天津里 出身 高昇化氏도 海女事業을 서바리에서 30여년간 하였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한다.

1927년경에는 日本에서 事業을 하다 釜山으로 정착한 天津里 出身 高秉六氏는 해녀사업 및 한천공장을 53년도부터 운영, 68년까지 하였고 신한여객을 운영하며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고지의 혈연관계 인구도 늘었다고 볼 수 있다.

1928년경에는 李泰振氏·尹丁賢氏는 影島 밭조내기(현재 청학동 해안가)에서 해녀船을 1960年度까지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整理된 것으로 보건데 이 時代에서는 牛島의 特產物인 우뭇가사리와 미역 등 해산물과 해녀! 이와 연루된 自然發生的 이주현상이라 볼수 있을 것 같다.

1945年 해방을 맞고 50년대는 6·25농란 등으로 국가경제나 국민 복리후생문

제는 상상치 못할 그러한 어려움에 있었고 길거리에는 빈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가 많았던 時節에도 우리네 海女의 아들, 딸들은 굽주리지 않았다 한다. 해녀의 노동력의 대가는 이제나 저제나 후한 편으로 보아지며 우리 제주도 어머니 모두는 그러하다고 自信있게 자격하고 싶다.

60년 들어 4·19혁명, 61년 5·16 쿠데타적혁명(?), 이듬해 화폐개혁 등 격동기를 겪고 월남파병, 새마을운동, 경제5개년계획 등 重工業정책으로 경제 부국으로 기는 길목에서 중동건설현장으로 상선이나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또는 공무원, 회사원, 유학생 등으로 하여 94년말 현재 2세까지만 해도 2,000여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다.

## 時代別 人物動向

### 1. 一 般

1) 金聲五(오봉리)先生은 1920년경 中國 北間島中學을 졸업하고, 本人의 實力에 걸맞는 취업을 하려 했으나 혼란기에 뜻한 바 있어 海技士면허 을종 2등항해 자격을 취득하여 해방과 동시 大韓海運公社 3천톤급 리바트호 선장에 취임하여 제주인의 자랑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동료 후배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재부우도면민회가 뿌리를 내릴 때 공로가 많았음.

2) 高天九先生은(서광리) 釜山에서 45년 당시 民衆日報(민중일보)를 창간 경영하였고 初代 國會議員으로 영도에서 出長한 경력이 있을만큼 나재다능하고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희생과 봉사精神이 남다르다는 평임.

3) 金用瑞氏, 文德進氏는 화물여객선인 70톤급 天祥호와 우진호를 운영하며 동향인들에 많은 편의제공을 하였고 면민회에도 공로가 많음.

4) 梁昌成氏는(오봉리) 68년 부산-서귀포-성산포항을 잇는 여객선 德南호를 취항 3년간 사업을 하였음.

5) 高昌保氏(오봉리) 62년도 조선해난구조사에서 선박과장을 취임시작으로 74년 해운항만청산하 부산연안 여객 터미널 소장에 취임 85년 정년 퇴임하였으며

교통부장관, 항만청장, 해운조합이사장 표창장 등 10여회 수상경력이 있음.

6) 金恒彬氏(조일리) 58년 28세의 연령으로 부산시 다대동 동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부산지역 양조장 42군데 것을 통합 사무국장으로 15년 재직하다 92년 정년 퇴직하고 지역단체장 및 社會봉사 활동중이며 道民會 부회장 역임.

7) 高仁弼氏(오봉리) 水產業

高泰兒(천진리) (주)영도공업 상무이사

李光三(오봉리) 진풍건설(주) 대표이사

尹浩吉( " ) 민자당 영도지구당 부위원장, 신우전기 대표

李芳憲( " ) 부산대상대출, (주)금성알프스 과장, 현 조양통상 대표

金道珉(조일리) 동아대 경제과졸, (주)한일관리부장, 현재 경동산업사 대표

金世均(서광리) 성산수고졸, 삼호물산(주) 과장, 현재 부농냉동식품(주)  
공장장/이사

高致英( " ) 동성전기산업사 대표

金用浩( " ) 경동석유 대표

尹龍雲(오봉리) 연세대출, 공인회계사(92년 합격)

## 2. 教育者 現況

鄭贊永(서광리) 고교교장,

尹熙澤(천진리) 중학교장

高幸煥(천진리) 고교교사,

李周庸(조일리) 고교교사

金天澤(조일리) 국교교사

## 3. 船員 現況

金珍斗(서광리) 선장 2급항해사,      윤학철(오봉리) 선장 2급항해사

김순남(오봉리) 선장 2급항해사,      고명수(오봉리) 선장 2급항해사

김철환 1급 기관사,      김인호 2급 기관사,      공도진 2급 기관사

고영훈 2급      " ,      고철희 1급 통신사,      김용식 1급 통신사

총 선원의 수는 100명으로 예상됨.

## 在釜牛島面民會 沿革

最初에는 演坪親睦會라 칭하여 단체가 구성되었으며 그 취지와 目的은 勿論 상부상조하는 성격을 띠었으나 現代의 내용과는 너무나 그 구성 性格이 달랐다.

45년 해방과 더불어 國家安寧 질서維持가 정리되지 못하고 경제적 빈곤, 교통수단의 불편으로 인하여 길흉사를 당했을 때 吉事는 問題가 되지 않았으나 褒을 당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고향의 상여를 생각할 수 조차 없었다.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同鄉人이 有故時에는 共同墓地에 안장을 시켜야 되겠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行喪團體가 필요하므로 친목회가 구성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우도면 승격과 더불어 우도면민회가 있게 된 것이다.

## 牛島面民會 創立發起人

尹順七, 李泰振, 高秉六, 金用瑞, 金聲五, 金允五, 梁昌成, 孔德一, 鄭贊治, 尹丁順, 高雲伯, 孔達奎, 梁成龍, 梁成秋, 金仁洙

### 歷代會長

初代會長 尹順七	23代會長 李正奎
5代會長 李泰振	26代會長 全仁崎
7代會長 梁昌成	32代會長 高昌保
9代會長 孔德一	33~35代會長 金恒彬
12代會長 梁成龍	36代會長 高昌保
15代會長 梁性秋	37代會長 梁豐島
18代會長 高昌保	(95~96년 2년 임기)



## 제3장 西 部 慶 南

고향을 떠나본 사람이면 안다. 그것도 빈손으로 천리타향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얀 파도뿐인 외지에 와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지금이야 웃고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어렵게 살았다.

제주도 속담에 '고망이 지 고망씩이난 산다'는 말이 있다. 집집마다 사람마다 사연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서부경남지역(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거제군, 남해군, 진주시)에 우도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 봄에 물질하러 왔다가 추석을 전후하여 귀향하던 형태에서 이 지역 사람들과 결혼하여 정착된 생활을 한 것은 1960년대다.

우리고장 우도사람인 강관순 선생이 지은 해녀의 노래를 부르며 한을 달랬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날 무더운날 비가오는 날에도  
거바다 물결위에 시달리는 봄"

현재 서부경남지역에 사는 우도면민은 졸잡아 450여명, 천진리출신 故 고태선, 故 윤신홍 제씨 등이 1950년대 정착했으며, 그 후로 강두엽, 정성준, 윤숙자, 윤석봉, 고용완, 고일수, 양상훈, 김홍식, 고권수, 윤석훈, 김일환 제씨 등이 통

영시에 살고 있다.

사천시(구 삼천포시)에는 이창조, 양석송, 김영자, 고계찬, 강환전, 신영구, 양순근, 고규환, 윤석현 등이 살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김행보씨가 세상을 떠나 타향에서 동향인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다.

김행보씨는 김항구편찬위원장, 이순형편집위원장, 고병수상임부위원장이 「牛島誌」 발간을 앞두고 사천시에 들렀을 때 일행을 본인이 운행하던 개인택시로 부산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한다.

쉬운 일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통영시와 사천시에는 우도친목회와 연평중학교 동문회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신구법 제주도지사가 서부경남을 방문했을 때는 우도출신 이창조씨가 경영하는 돌바위횟집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기도 했다.

해녀중심의 조직에서 하나 둘 직장을 가지고 공직에서 일하는가 하면, 자영업으로 튼튼하게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창조(54·천진리 출신)씨는 삼천포제일고등학교 총학생회장(1961), 삼천포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장(1990~1992), 한라일보 서부경남 주재기자(1992~1995),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장(1989~1991)을 지냈다.

현재 사천시에서 돌바위회센타를 아내인 김부미자(성산읍 신풍리 출신)씨와 함께 경영하면서 상가번영회장직을 맡아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신영구(48·천진리 출신)씨는 나참어업을 하고 있는데 대성호 선주로 해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현재 삼천포제주도민회장을 맡아 있다.

통영시에는 먼저 1971년부터 나참업을 시작한 정성준(58·서광리 출신)과 윤숙자(천진리 출신)씨 부부를 들 수 있다. 통영시 미수2동 326-1에 살면서 최초로 나참업을 본격적으로 했으며, 미수1·2동을 부자마을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금 미수동에 사는 주민 50%가 제주사람들이라는 데는 정씨의 공헌이 크다 하겠다.

고일수(55·오봉리 출신) 양충자(54·천진리 출신)부부는 통영시 미수2동에서 삼다도 횟집을 경영하고 있다.

고정신(50·오봉리 출신)씨는 여성으로서 미수2동에 최초로 횟집을 시작했고, 지금의 횟집센타의 원조 역할을 했다. 고씨가 경영하는 제주횟집은 미수동의 터줏대감 노릇을 똑똑하게 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계에는 고문환(53·천진리 출신, 고고태주씨 둘째아들)씨가 합천군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초등교 교장 자격을 취득해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제주·MBC가 다큐멘터리 해녀를 취재갔을 때도 헌신적으로 협조했고, 「우도지」발간 취지를 설명하러 간 편찬위원회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어렵지만 열심히, 그러나가도 경·조사가 나면 모든 일 제쳐두고 뭉쳐서 살아가는 우도사람들은 비록 뜻은 티향에 있지만 마음은 늘 섬머리동산에서 쇠맥이던 일과 보살맥끼서 고냉이 이빨 줄단 추억을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우도민의 공지를 가지고…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 운영위원회시 통영시 사랑도에서 기념촬영한 것이며 우도출신으로 아래줄에 이창조, 윤석훈, 고산백(하우목동), 뒷줄에 김일환(조일리), 이숙실(천진리), 양순심(오봉리), 양상훈(오봉리), 강재봉(오봉리), 채영오(천진리)가 있음.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 방문기념. 이창조 경영 돌바위횟집에서 신구범제주도지사, 김명신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장, 이창조외



서울제주도민회참석시 왼쪽부터 제주시출신 탈렌트, 애월출신 양경일, 이창조, 고두심,  
중달출신 한정홍 등과 함께



서울제주도민회 체육대회 참가시 기념촬영(얼굴보면 알만 할 걸)

牛島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북제주군



## 군정현황

### ■ 우리 군의 연혁

- 1946. 8. 1 도제실시에 따라 북제주군 설치
- 1949. 8. 15 군산하 읍면단위의 자치제 실시
- 1961. 10. 1 군자치제 실시
- 1991. 4. 15 군의회 구성(의원 9명)
- 1995. 7. 민선군수 취임, 제2기 군의회 출범

### ■ 자연의 특성

- 맑은 공기, 청정한 해역, 광활한 초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
- 삼무, 주 낭정신이 계승된 전통문화의 보존지
- 세계 최장의 천연용암동굴인 만장굴과 빌레못굴 등 용암동굴지대
- 감귤, 당근, 옥돔, 소라, 양돈, 한우 등 농·축·수산물의 주산지

## □ 관광·관광분야

- 주요관광지 : 만장굴, 항몽유적지, 비자림, 협재굴, 산굼부리, 분재예술원, 우도8경 등
  - 관광객 및 관람료 수입 ('95) : 4,703천명 · 5,866백만원
- 자동차 등록 ('96. 8월 현재) : 19,106대
  - 관용 81, 자가용 18,157, 영업용 868
- ※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추진 ('96~2001년까지)
  - 동부지역 : 5개지구 · 2조648억원 투자
  - 서부지역 : 5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심의중

## □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시설 — 100개소
  - 양로시설 2, 장애인시설 1, 보육시설 17, 경로당 80
- 의료시설 — 54개소
  - 의원 23, 보건소 1, 보건지소 및 진료소 30
- 식품점객업소 — 748개소
  - 일반음식점 558, 휴게음식점 87, 유흥주점 31, 단란주점 72
- 공중위생업소 — 258개소
  - 숙박업 39, 목욕업 14, 유기장 21, 이·미용업 140, 기타 44

## □ 교육·체육분야

- 교육시설 — 55개교 · 16,835명
  - 초등학교 33, 중학교 14, 고등학교 6, 대학교 1, 특수학교 1
- 문화시설 — 10개소
  - 청소년수련시설 5, 도서관 2, 문화·체육관 3
- 문화재 — 61종(국가지정 9, 도지정 52)

## 북제주군의회 의원일동은

10만 군민의 심부름꾼임을 항상 유념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북제주군의 번영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부의장 김용삼

의원 양보윤

의원 김용홍

의원 고승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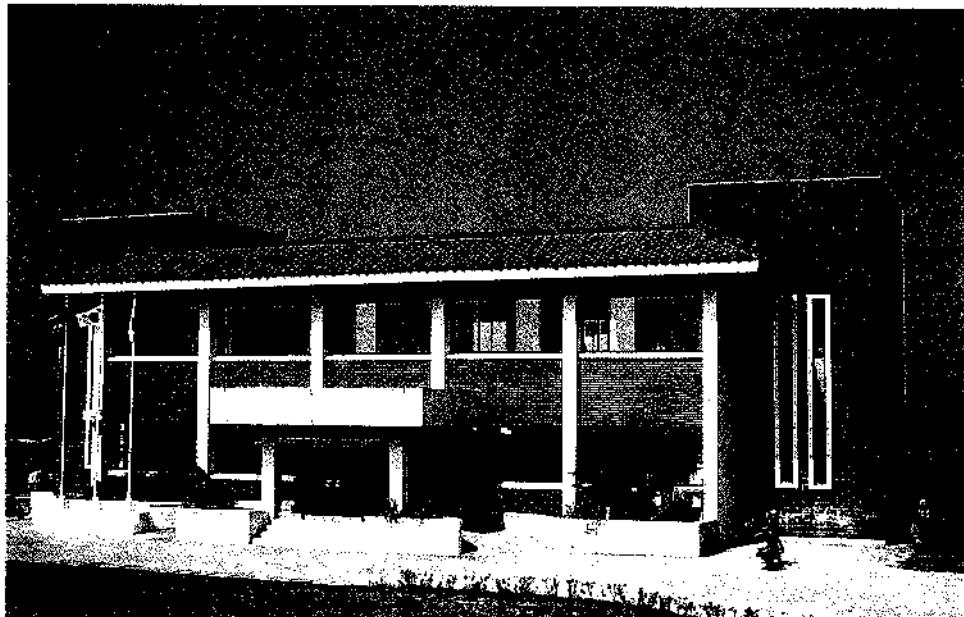
의원 임만경

의원 윤창호

의원 박방규

의원 김항구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우도면사무소

초대 면장	김	항	운
2대 면장	원	복	연

면	장	고	창	도
부	면	김	희	봉
총	무	김	성	관
개	계	고	창	업
민	계	여	일	형
산	계	이	태	훈

우도면 서광리 1451-3

전화 면장실 : 83-0005

개발계 · 산업계 : 83-0419

민원실 · 당직실 : 83-0004

83-0103



## 우도노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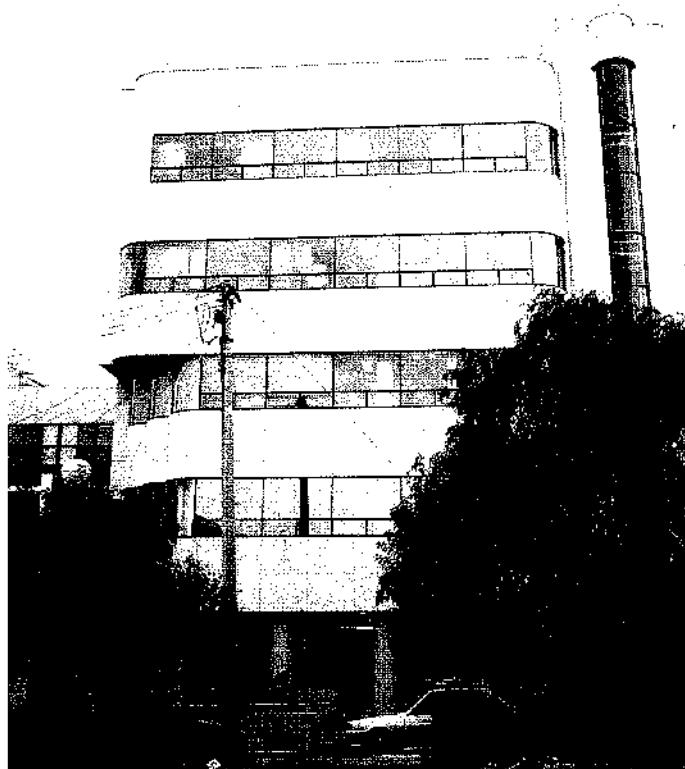
### \* 임원

고문 우봉수, 정찬경, 우봉호  
회장 신인홍  
부회장 윤수남, 고태건  
감사 김군선, 정학준  
총무 오영돈

이사 강상칠, 이기환, 김향육,  
우두석, 김창백, 김계환,  
김태수, 공내수, 김용교,  
고봉필

### \* 사업

- |   |  |
|---|--|
| 92. 1월. 우도면 노인정 인가<br>2월. 학생선행상 시상 중 1. 국 1명<br>8월. 어린이총효교실 4개 리사무소 실시  | 93. 8월. 우도면 중앙도로변 청소<br>10월. 장수노인위문 남 6, 여 1<br>12월. 겨울총효교실 우도면복지회관                        |
| 93. 2월. 학생선행상 시상 중 1. 국 1명<br>7월. 해안가 쓰레기 청소<br>7월. 우도면 전 가정에 국기보급 700매<br>8월. 어린이총효교실 우도면 복지회관<br>8월. 효자상추천 북제주지회장상 시상 | 94. 2월. 학생선행상시상 중 1. 국 1<br>○ 수국묘목파종 도로변<br>○ 약초시험재배<br>○ 가훈제작 6편출품 지회 입상<br>8월. 총효교실 복지회관 |



金 斗 英

(하우목동 출신)

學 歷

- 演坪初等學校 卒業
- 濟州中學校 卒業
- 濟州農業高等學校 卒業
- 東亞大學校 法學科 卒業
- 東亞大學校 學生會長

經 歷

- 大韓石炭公社 勤務
- 斗山그룹, 東山土建(株) 勤務
- (株)에메랄드 觀光호텔 管理理事
- 壯元綜合建設 株式會社 會長(現)
- 장호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현)
- 在京牛島面民會 會長
- 서울濟州道民會 副會長
- 在京濟州中學校 同門會長
- 在京濟州農業高等學校 同窓會 副會長

주소 :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중흥마을 603동 301호

전화 { 사무실 : (064) 21-8111  
            자택 : (032) 323-5814

牛島誌 敬刊을 賀합니다



代表 梁 豊 島

在釜山 牛島面民會 會長

# 신동아수산물 종합시장 3층 회센타 1, 4, 5, 6, 7, 8號

주소 : 부산시 남포동 신동아시장 3층

전 화 246-4645, 245-7157



대표 강영오

# 파라솔노래연습장

(홍대식소아과, 명진치과 건너편)

## 특 징

- 최고 음향시설 완비
- 녹음시설 완비(테이프 무료)
- 주간 특별서비스 제공
- 팡파레 올리는 고득점자 경품시상
- 방문 기념품 증정(선착순)
- 전화예약 환영

☎ (051) 621-3009  
자택 (051) 414-1345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代表 高致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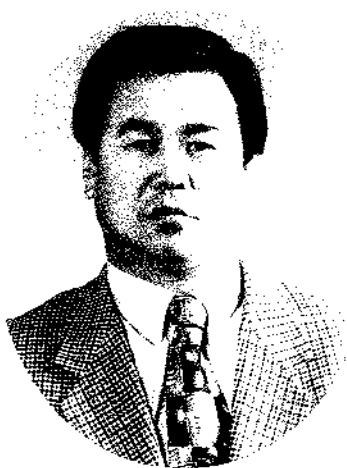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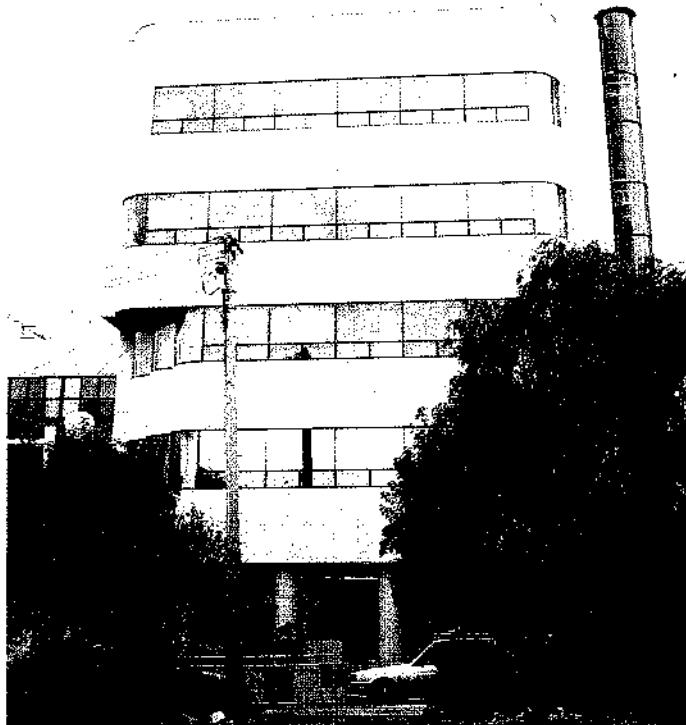
電氣配電盤  
工 場

釜山廣域市 沙上區 周禮洞 1161-10

전화 (051) 325 - 4246

325 - 4247

FAX (051) 326 - 4244



代表理事

鄭 萬 化

壯元綜合建設株式會社

제주시 일도2동 355-10

- 전화
- 대 표 (064) 21-8111
  - 직 통 (064) 21-8115
  - 자 택 (064) 57-3077
  - FAX (064) 21-8110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로  
미래 건설산업의 주역으로  
발전하는 기업 —



有成建設株式會社

(綜合建設業, 土木建築, 鋪裝, 住宅建設)

代表理事 金榮哲, 吳憲奉

제주시 일도2동 49-4

전 화 (064) 25-5111~3

FAX (064) 25-5114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대성토건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공사업)

대표이사 강태욱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0-45

사무실 (064) 44-8472

자택 (064) 25-1545

F A X (064) 44-8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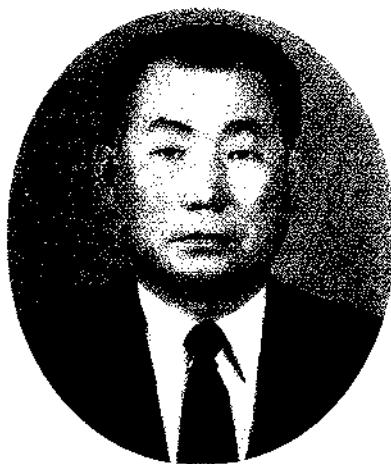
수출국 품질을 확보합니다

저축은 농업

# 구좌농업협동조합

## 사업안내

영농지도·구매(농약·농기계·각종 비료·일반자재)  
상호금융·공제·생활물자·가공사업



조합장 부준식

조합장실 82-3516  
전무실 83-2651  
기획부 83-2653  
신용부 83-2651~2  
지도·경제 83-2654  
연쇄점 84-1618  
가공공장 84-1362  
FAX 82-5046  
하도지소 83-3077  
84-0575(FAX)  
우도지소 83-0008(FAX)  
83-9719  
중부지소 83-4326  
83-2446(FAX)  
행원예금취급소 83-2144

식주아진·이구종·이홍민·찬보언·현태·호신  
준장태·데정·한민·장정·진종석·석석재·두오·칠창  
부김부·김길강·김길양·오윤준·안진무·부권운·정정  
사: 김길강·김길양·오윤준·안진무·부권운·정정  
감사: 김길강·김길양·오윤준·안진무·부권운·정정  
전무: 김길강·김길양·오윤준·안진무·부권운·정정  
지도경제상무: 김길강·김길양·오윤준·안진무·부권운·정정  
하도지소장: 김길강·김길양·오윤준·안진무·부권운·정정  
우도지소장: 김길강·김길양·오윤준·안진무·부권운·정정  
중부지소장: 김길강·김길양·오윤준·안진무·부권운·정정

# 濟州市水產業協同組合

## 水協運營指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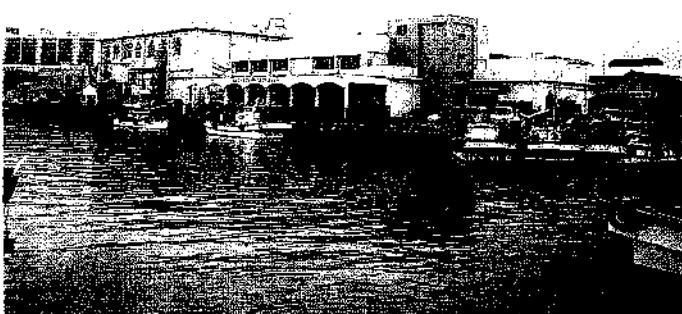
내가가꾼 푸른바다  
맑아오는 우리어촌

### 目 標

水産業 競争力 強化  
활기찬 새 漁村 建設

### 重點方針

1. 現場密着 指導事業 強化
2. 漁業人 便益 經營事業 擴大
3. 信用事業 專門性 提高
4. 內實 있는 正道 經營



### 임원현황

이사 고운풀	이사 한대용
이사 김태보	이사 고흥림
이사 강창송	감사 이창식
이사 박정웅	감사 김인택
전무 강호방	
구좌지소장 유상호	
우도출장소장 김광국	

조합장 홍성보

### 전 화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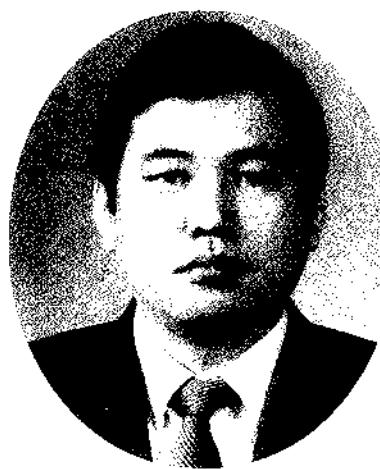
- |                         |                       |
|-------------------------|-----------------------|
| ○ 조합본소 (064) 53-1001    | ○ 구좌지소 (064) 83-2645  |
| 53-1004 ~ 7             | 83-2646               |
| ○ 신용사업부 (064) 53-1002-3 | ○ 우도출장소 (064) 83-0009 |
|                         | 83-0010               |



# 濟 中 痘 院

도민을 위한, 도민의 제주중앙병원

열린 병원, 밝은 병원, 편안한 병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최고의 의료진과 각종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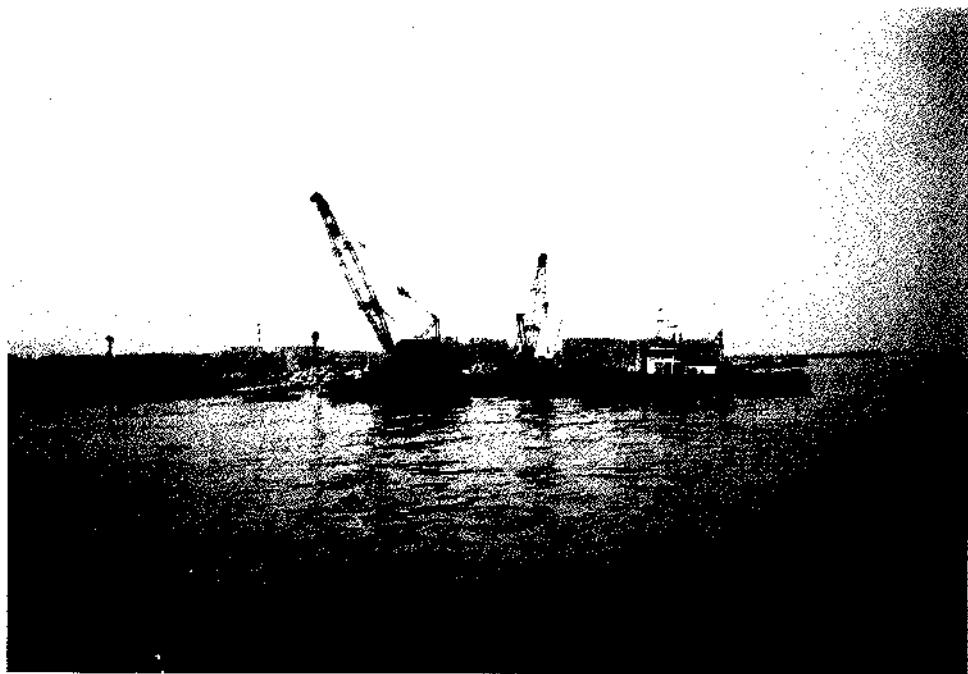
1 내내내일	내과내과내과	과전문의과전문의과전문의	이명경김경성김경호	렬석환수호정호준	정호준	의사사장	상철영	수정	태복수식
2 소아부인정형외과	아과인과외과	전문의전문의전문의	이민준조준용	호정호준용	호준용	장장장	영순성	정진	지심택
3 방사선과	과전문의	전문의	김덕권	용택	용택	장장장	장장장	김진	태

(代) Tel. 20-2000, FAX. 20-2099

(응급실 : 20-2010, 2085)

제주중앙병원장 김덕용

小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대표 신 관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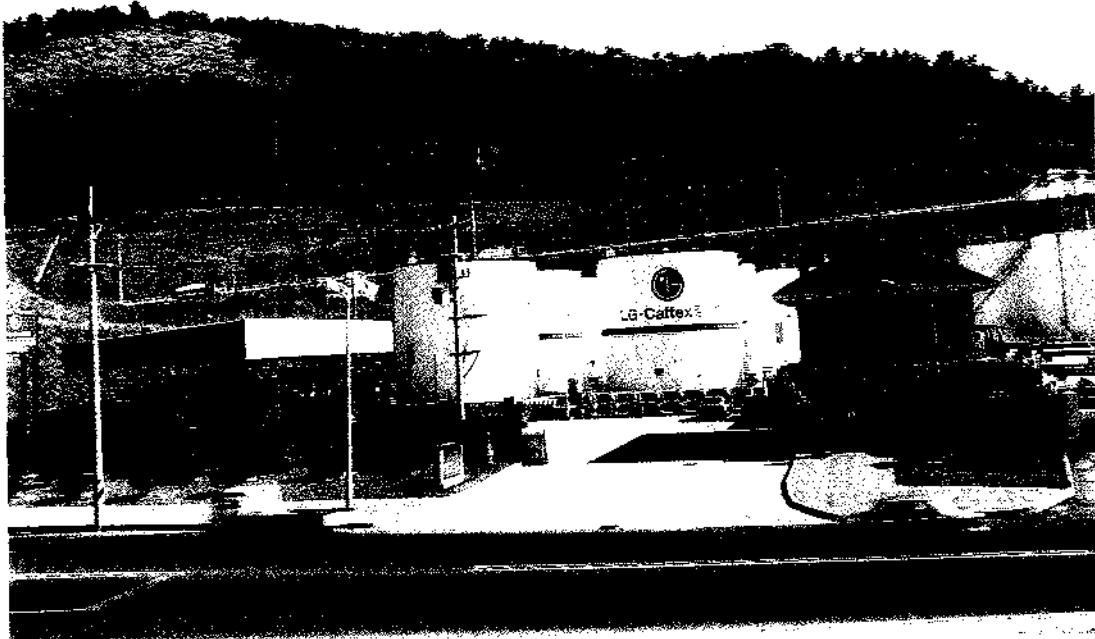
## 동성수중개발공사

성실과 신용으로  
최선을 다하는 기업!  
저희 동성수중개발공사는 성실 완전시공의  
무결점 주의를 추구하며  
인간과 도시·자연이 조화되어  
인정이 넘치는 복지 제주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788-10

☎ (064) 58 - 3001

牛島志 發刊을 祝賀합니다



# 三南石油株式會社

代表理事  
社長 張 倫 宅

제주시 용담1동 265-4번지

대표전화 (064) 53-5151번

F A X (064) 53-8766번



영업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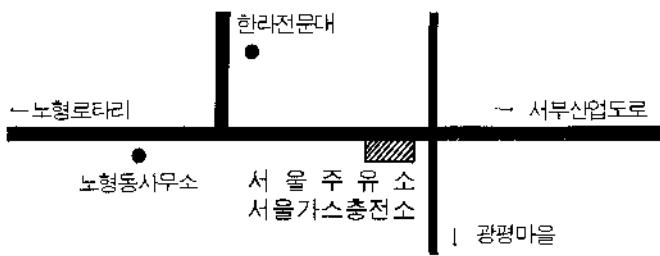
자동차기름및자동차가스충전 · 손세차와같은초고속자동세차 · 윤활유교환전문인경정비

서  
비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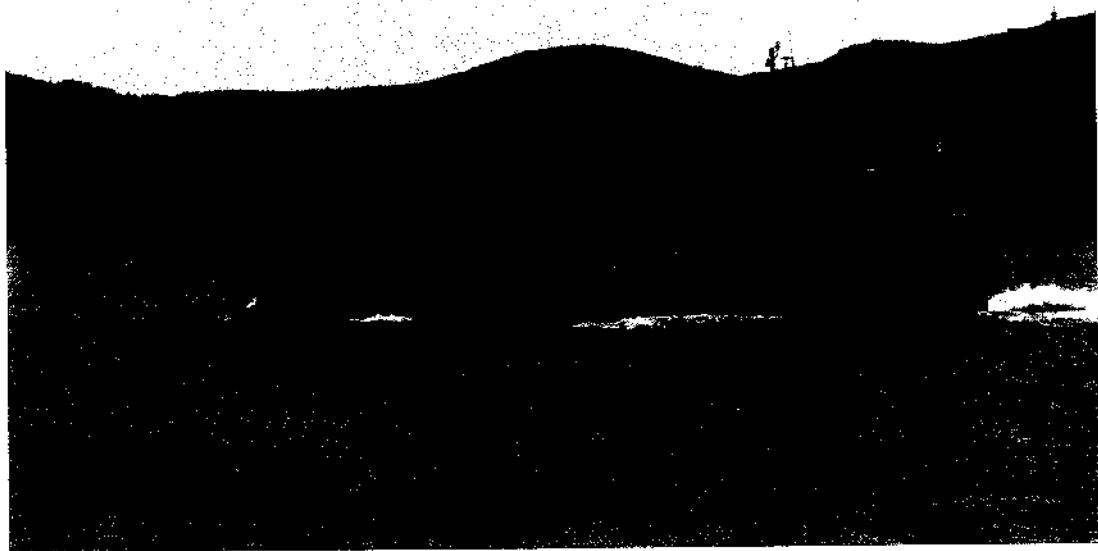
- 30만원 주입시, 윤활유 · 오일필터 무료교환
- 50만원 주입시, 윤활유 · 오일필터 · 에어크리너 무료교환
- 윤활유 소형 15,000원, 대형 17,000원에 교환

## 서울주유소 · 서울가스충전소

TEL : 48-1439, 44-4090



牛馬驥 遊川을 觀賞합니다



# 우 도 해 운

— 우일호, 우일카훼리호, 덕일훼리호 —

대 표 임 봉 순



북제주군 우도면 천진리 1739-13

우도대합실 { 전화 : 83-0448  
FAX : 84-0626

성산대합실 { 전화 : 82-5671  
FAX : 84-3888

운항시간 07: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1회)



대표이사 윤 두 필

주식  
회사

# 서 광 건 설

전문건설업 : 상하수도 설비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중기대여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서광리 1458-14

제주시사무실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0-26

전 화 : (064) 83-0121 · 82-0191

(064) 48-4046~7

자택 (064) 82-0122

FAX : 84-0221 · 48-4046



우 근 민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졸업
- 총무처 인사국장
- 총무처 기획관리실장
-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차관급)
- 제27대, 제28대 제주도지사
- 남해화학주식회사 사장(현)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2-1 우성APT 22동 507호

TEL. 02) 562 - 0406



金 恒 彬

(영일동 출신)

경 력

- 부산 턱·약주제조협회사무국장
- 부산 우도면민회 회장
- 부산 제주도민회 부회장
- 부산 제주도민회 서부지회 부회장
- 부산 우도면민회 고문(현)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768

전화 261-1683



吳 永 宗

(하우목동 출신)

學 歷

- 演坪初等學校 卒業
- 濟州中學校 卒業
- 濟州商業高等學校 卒業
- 濟州大學校 法學科 卒業

經 歷

- 檢察書記官 勤務
- 各 檢察廳 課長 歷任
- 吳永宗法務士事務所 所長(현)
- 在京牛島面民會 顧問(현)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APT 907동 102호

전화 { 사무실 (02) 755-5881  
            자택 (02) 649-0617



(하우목동 출신)

釜山社稷高等學校

校長 鄭贊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76 가락타운APT 322동 501호

전화 { 사무실 : (051) 293-2006  
          자택 : (051) 501-7711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高 哲 煥

(서천진동 출신)

### 學歷 및 經歷

- 演坪初等學校 卒業
- 城山中學校 卒業
- 釜山東洲高等學校 卒業
- 三元商社代表(自動車部品販賣業) (現)
- 在京牛島面民會 監事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3-2

전 화 { 사무실 : (02) 679-9567  
자 택 : (02) 292-2139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오 종 수

(영일동 출신)

○ 굴 양식업    ○ 어패류 취급

가 족 사 항

- 처 : 김기정
- 자 : 오수영 (포항비취호텔 대리)
- 자 : 오정혜 (학원강사)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192-1  
신우대영그린아파트 B동 102호  
전 화 0557-41-3266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尹 石 萬

(서천진동 출신)

## 學歷 및 經歷

- 演坪初等學校 卒業
- 演坪中學校 卒業
- 五賢高等學校 卒業
- 陸軍士官學校
- 漢陽大學校 機械工學科 卒業
- 現代그룹 現代產業開發(株) 常務理事(現)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9 흥실APT 6동 1201호

전 화 { 사무실 : (02) 549-1408  
                    자 택 : (02) 545-9853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全 尚 九

(동천진동 출신)

### 學歷 및 經歷

- 演坪初等學校 卒業
- 演坪中學校 卒業
- 釜山光城高等學校 卒業
- 建築業에 從事
- 牛島住宅 社長(現)
- 在京牛島面民會 副會長(總務擔當) (現)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260-12

전 화 : (02) 684 - 4320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京 東 產 業 社

代 表 金 道 眇

(영일동 출신)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4동 1215-25

전 화 { 사무실 : (051) 633-6495, 634-2830  
                    자 택 : (051) 622-3571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김 봉 록

〔하고수동 출신〕  
남 성 해 운

### 가 족 사 항

- 처 : 양성여
- 자 : 김유신 (한진그룹 근무)
- 자 : 김유필 (현대그룹 근무)
- 자 : 김신저 (해군 복무중)

부산 영도구 동삼2동 824-18

☎ 414-1804



高 昌 浩

(1933년생 비양동 출신)

種德施惠

丙子年秋節  
淡遠高昌浩

紀牛島誌發刊

학력

제주사범학교 제1회 졸업

경력

- 시흥, 동남, 태흥, 표선초등학교 교장 역임
- 온평초등학교 교장(현)

시상

- 아동교육발전 및 아동급식 건강증진기여 문교부장관 표창
- 국가민족 아동교육공헌 교육부장관상
- BBS운영발전기여 한국BBS중앙회 총재 감사패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869

전화 (직장 : (064) 84-4809  
자택 : (064) 82-2796



金富大

(1937년생 상우목동 출신)

학력

- 연평초등학교 졸업
- 성산중학교 졸업
- 성산수산고등학교 졸업
- 부산수산대학교 졸업

경력

- 수협진주공판장 장
- 수협경기도지회 부지회장
- 수협중앙회 시홍지점장
- 수협제주도지회 부지회장
- 수협제주도지회 지회장

사회봉사

- 재 제주 우도연우회장
- 재 제주 우도면민회장(현)
- 우도 라이온스크럽 1, 3대 회장(현)

제주시 일도2동 1013-1  
전화 (064) 58 - 0042



## 고 충석

(서천진동 출신)

### 학력

- 연평초등학교
- 오현중·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박사)

### 경력

- 제주대학교 교수(현)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겸 행정대학원장(현)



姜 英 吉

— 1950년생 —

학 력

연평초·중학교, 오현고등학교, 한국방송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주요경력

공무원 12년(강신익, 박상열, 이규이, 최재영 제주도지사 비서)  
민자당제주시지구당 부위원장, 민주산악회 북제주군지부 부지부장  
우도해운 대표

가족사항

이경자(처·주부)

강민석(장남·대학생) · 강민애(장녀·대학생) · 강민범(차남·중학생)

협성호, 연봉호로 시작하여 우일호를 신조 우도도항선업  
을 약 7년('88~'94) 동안 경영하면서 여러가지 모자란 점  
이 많았음에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우도면민의 따뜻한 후  
의와 협조에 본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벽돌, 블록, 보도블록  
시멘트가공, KS품

## 새 한영 산업

제작 공 및 시공  
산방석재  
굴삭기, 덤프  
**신중종기**

대표 김재웅  
(서천진동 출신)

사무실 서귀포시 색달동 2561번지

전화 (064) 38-4834

F A S (064) 38-4833

자택 (064) 63-3579

공장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1-1번지

전화 (064) 94-0900, 94-8003

F A X (064) 94-9451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在京牛島面民會



顧問 高德煥



顧問 吳永宗



會長 金斗英



副會長 金乃桓



副會長 高桂花



監事 高哲煥



副會長 韓在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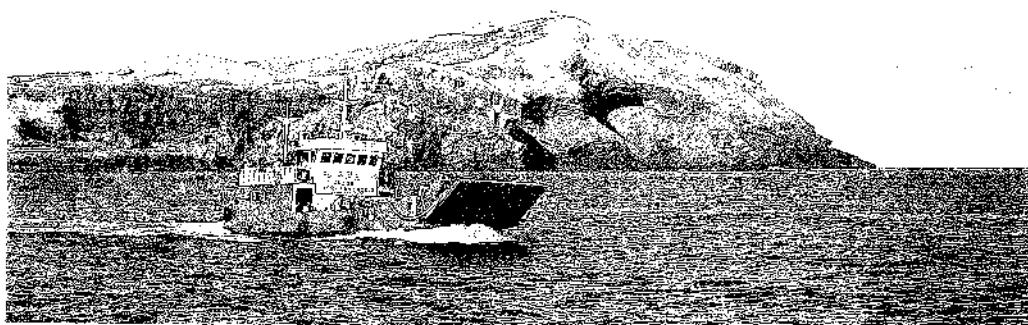
副會長(總務擔當) 全尚九

## “내 고향 우도를 사랑하는 통영인！”

### 경남 통영지구 협찬자 명단

윤석봉 김홍식 고일수 정성준 양세교  
고용환 고권수 강동진 채영오 김태일  
정복남 김국진 고안철 고길수 윤석원  
김봉구 양명길 양형택 윤성환 윤부국  
차주학 양상훈 이택수 고대선 윤원식  
고복동 고이윤 우신범 채웅배 우종범  
윤상식 김두선 차주동 황승보 고철용  
윤두전 양용혁 (무순)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등 머 을 회

우도면 조일리 · 비양동 출신중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향토 빌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 10. 29일 결성.

초대회장 : 고영수 총무 : 공광수  
2대 회장 : 고석준 총무 : 양세창  
3대 회장 : 강영철 총무 : 여찬현  
4대 회장 : 김성진 총무 : 고봉찬  
5대 회장 : 강문종 총무 : 공안홍  
6대 회장 : 여일형 총무 : 한용종

회원  
고영수, 고석준, 강영철, 공광수,  
김성진, 강문종, 여일형, 여찬현,  
고봉찬, 공안홍, 고창덕, 양세창,  
한용종, 헝승길, 공이성, 고창완,  
윤인내, 한재천, 한재국, 고도근,  
황규호, 강문수, 김봉식(기준)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내고장

더 푸르고 아름답게

정화조 청소업

미도위생운수(주)

대표이사 신 관 일  
전무이사 부 태 만  
상무이사 김 인 철

제주시 화북1동 2146

전화 55-0230~1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우도면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도면 개발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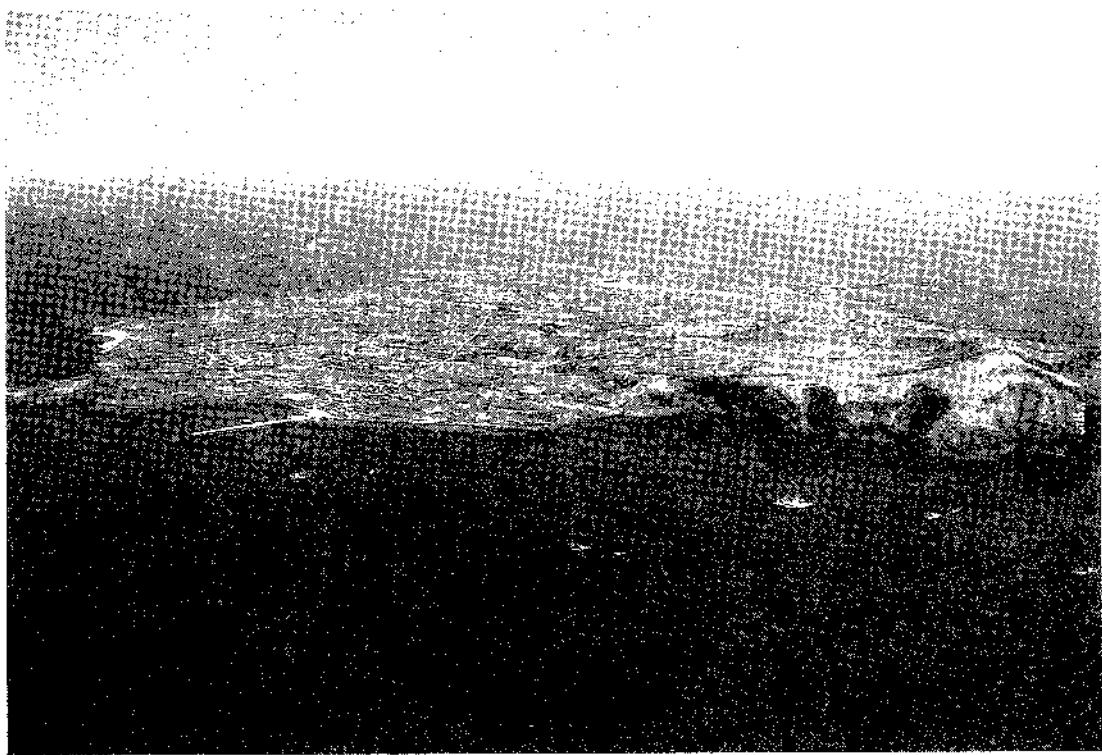
위원장 고 병 수(☎83-0018)

부위원장 정 만 식(☎83-0047)

### 위 원

강안근 (☎83-0567)	고용숙 (☎83-0078)	고익환 (☎83-0220)	양계영 (☎83-0155)
전상만 (☎83-0258)	강철석 (☎83-0412)	신인홍 (☎83-0029)	김재민 (☎83-0166)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천진리 어촌계

계장 여 달 현  
간사 양 희 진  
전화 82 - 0390

## 서광리 어촌계

계장 강 순 일  
간사 김 용 견  
전화 83 - 0348

## 오봉리 어촌계

계장 윤 복 일  
간사 김 명 하  
전화 83 - 0543

## 조일리 어촌계

계장 김 준 태  
간사  
전화 82 - 5464

## 바르게 살기 운동 우도면 위원회



회장 김철수

부회장 : 윤석민, 박두필

사무장 : 고혜동

### 위원

김정희, 공승남, 양정부, 홍필수, 김항우, 양계영,  
고응옥, 고재수, 한두영, 우덕근, 황윤호, 김경찬,  
윤두필, 한춘식, 김명하, 윤봉국, 공금수, 고호수  
(무순)

# 우도면연합청년회

회장 윤복일

고문 윤석우, 우영훈, 고재수, 강영수

상임부회장 고창수,

부회장 황윤호, 고규백, 우양범

감사 김영진, 양희진, 김봉삼, 강세정

총무부장 이현찬, 체육부장 강길홍

홍보부장 고홍범, 선도부장 김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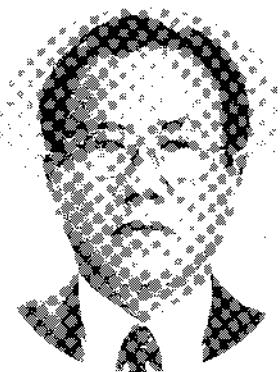
문화부장 양수호, 봉사부장 공기봉

## 역대회장

1대 김성도 2대 김용훈

3대 고영주 4대 최병숙

# 연평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영태

부회장 김철수, 부회장 김명하, 감사 우영훈, 감사 고영주, 총무 고광환

**이사**

윤석민, 김상주, 김성도, 홍종수, 양순경, 윤봉국  
고홍범, 고혜동, 김봉삼, 김광민, 여중섭, 김영진

## 역대 회장단

구분	1 대	2 대	3 대	4 대	5 대	6 대	7 대	8 대	9 대
회장	고이택	고이택	고이택	고이택	전상신	한두영	김승태	김승태	김승태
부회장	최승부	최승부	최승부	한두영	한두영	고홍주	김성도	김성도	여완형
"	김향근	고익환	고익환	최승부	김순두	고창식	김명하	김명하	김명하
감사	고창서	고창서	고창서	고창서	고홍주	고창서	고창서	고창서	고홍주
"	고영환	윤서훈	한두영	김정남	김정남	김정남	고홍주	고홍주	강영수
총무	고홍주	고홍주	고홍주	고홍주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구분	10 대	11 대	12 대	13 대	14 대	15 대	16 대	17
회장	고홍주	고홍주	고병수	고병수	김영택	김영택	김영택	김영택
부회장	고창식	고창식	우영훈	우영훈	우영훈	우영훈	우영훈	김명하
"	양순근	양순근	고순환	고순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감사	우영훈	우영훈	고영주	고영주	고영주	고영주	고영주	우영훈
"	고순환	고순환	양순근	양순근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총무	고광환	고광환						

# 제주도면민회

회장 김부대

고문

우근민 김덕선 고창호 고태경 김성대 윤철영  
김영국 김종학 윤창현 양순길 이순형 오술생

부회장

고창선 이휴성 김순두 우태진 정만화  
김상민 강영길 고훈철 오태용 신영훈

감사

김재옹, 강영철

이사

고계동 채군배 고계환 김항근 홍대수 고계추  
고민환 고영환 고유환 강효길 부태만 고영수  
김용명 양원교 김영수 고범환 김용관 한동균  
한길동 고흥식 신영만 임수길 윤두철 고창덕  
여찬현 곽창수 김성민 우윤필 이영훈 양형철  
고성훈

총무 채종익

부총무 김치민

재무 강성보

홍보 김세도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내고향 우도를 항상 사랑하는 —

# 재제주연우회

회장 김항근  
부회장 김순두  
총무부장 김동건

## 회원

김부대	오태선	윤석찬	고계동	채군배
고계환	고경환	김영언	고계추	홍대수
정만화	고훈일	고영환	김용철	고충석
김세도	고진환	고내환	강영길	고수환
양원교	부태만	강성보	고영수	우명훈
홍수	강영식	여찬현	채종익	임수길

(무순)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대표이사 김영국

제주시 급수대행업

**대진수도공무사  
주식회사 하나건설**

수중공사업 (1995. 1. 1 설립)

사무실 : 제주시 화북1동 194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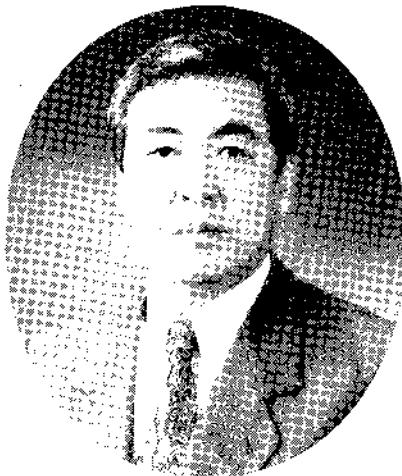
TEL : 22-5987, 56-5987, 21-9666

FAX : 21-9666

자택 : 제주시 삼도1동 512-11

TEL : 55-9408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제주가스 충전소나우상사 라온즈 고리파이프

대 표 조 장 생

전화

- 제주가스 57-4114~5
- 사우나 57-4111~3
- 고리파이프 21-8400
- 자택 22-6044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대 표

최 병 수

우도관광의 길잡이  
**우 도 교 통**  
각종미끼, 선박알선  
**우 도 낚 시 쎈 타**  
**우 도 가 스**  
**미림전자 · 우도유선방송**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서광리 1344  
전 화 사무실 (064) 83-0152  
자 택 (064) 82-0152  
F A X (064) 82-6000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제일마크사

대표 고 수 환

(서천진동 출신)

- 제주시 삼도1동 572-25
- 사무실 — 전화 22-0576
- FAX 25-0576
- 자 택 — 제주시 연동 320-72
- 전화 42-5190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고 창 보

(하고수동 출신)

### 학 력

고구라시해양상선단기 1년 수료

### 경 력

조난해난구조사 · 한국상선주식회사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소장)

### 사회봉사

부 산 연 우 회 회 장  
부 산 제 주 도 민 회 수 석 감 사  
재 부 우 도 면 민 회 회 장  
한 국 해 운 조 합 부 산 지 부 지 부 장

### 포 상

부 산 시 장 감 사 패  
부 산 해 운 항 만 청 장 공 로 패  
중 앙 해 운 항 만 청 장 공 로 패  
부 산 도 민 회, 우 도 면 민 회 공 로 패  
교 통 부 장 관 표 창 장

부산시 영도구 동삼3동 주공APT 208동 1501호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김 항 구

(1935년생 조일리 출신)

## 학 력

- 국제웅변대학분과수료
- 육군 정훈학교 특별교육반 공보학과 수료

## 경 력

- 연평리 농업협동조합 창립이사
- 화신인쇄사 대표 겸 제주인쇄 협동조합이사
- 민정당 · 민자당북제주군지구당 부위원장
- 북제주군의료보험조합 감사
- 초대 · 제2대 북제주군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수산분과) (현)
- 초대 · 제2대 북제주군의회의원 (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제주군협의회 부회장(현)

## 게재문

- (시) 주호의 민초  
(洲湖의 民草) : 제민일보
- 통일을 대비한 국민의식의 전환 : 북제주군지
- 전통문화의 승계발전을 위한 소고 : 한라일보 3회 연재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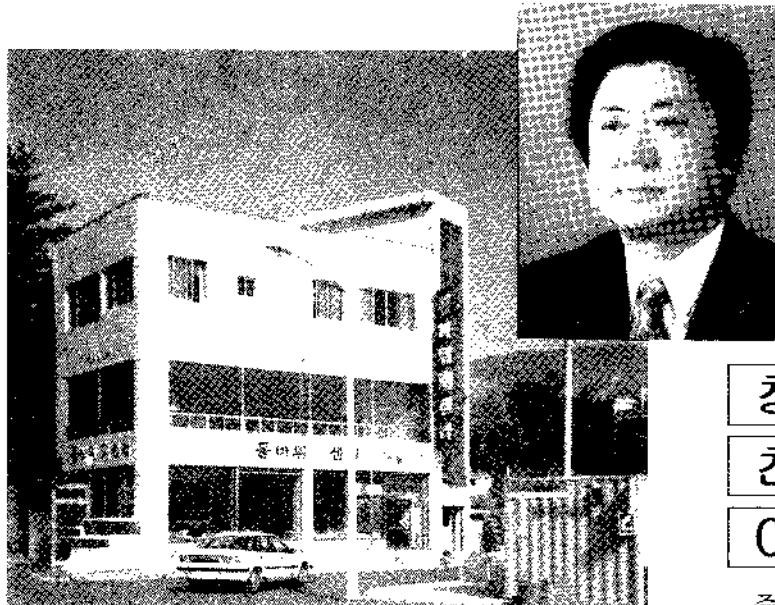
教育學博士 李 淳 珩  
(비양동 출신)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教授  
濟州新聞社 論說委員  
濟州教育社會研究院 院長

學校：濟州道 濟州市 我羅洞 1番地  
(064)54-2163  
自宅 (064)55-0224  
FAX (064)55-6103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돌바위 회 센타



청결하게  
친절하게  
아주싸게

주인아저씨 이 창조  
주인아줌마 김부미자

## 편리한 점

- 넓고 무한한 주차장
- 단체손님 대환영
- 2층 연회석 완비
- 예약 수시 접수중
- 최신식 활어 수족관(각종 활어)
- 부설 기념품 판매 및 각종 자판기
- 봉고차 대기중
- 삼다도 슈퍼 운영

## 위치

한려수도 해상공원과 노산공원이 함께 위치한 경관이 좋은 곳.  
삼천포시 팔포매립지

전화 (0593) 835-1500, 33-4566

광역빠삐 015-537-8765

\*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채 군 배

(동천진동 출신)

## 경력

- '66. 9. 국립수산진흥원 기술관리과 근무
- '77. 8. 국립수산기술훈련소 교수부 근무
- '80. 4. 국립수산물검사소 제주지소 근무
- '83. 4. 국립수산진흥원 제주어촌지도소 근무

## 상훈

- '78. 12. 농림수산부장관 표창
- '85. 12. 국립수산진흥원장 표창
- '87. 10. 농림수산부장관 표창
- '90. 7. 수산청장 표창
- '95. 12. 모범공무원표창(국무총리)

근무처 : 국립수산진흥원 제주어촌지도소 지도과장  
제주시 외도동 500번지 (T. 42-2511)

주 소 : 제주시 이도2동 1135-5 (T. 58-8833)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김 항 균

— 1944년생, 하우복동 출신 —

### 학 력

- 연평초등·중학교
-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 한국방송대학교 행정학과

### 경 력

- 연평중학교 근무
-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근무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제주시지회 사무국장(현)

### 수상현황

- 문교부장관표창장 수상
- 내무부장관표창장 수상
- 제주시수협조합장표창장 수상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표창장 수상
- 새마을문고제주도지부회장표창장 수상

### 기타봉사

- 전하우새마을문교설립(회장)
- 경리청년연합회장(초대회장)
- 제주신문우도통신원역임(15년간)
- 제주연우회회장(현)
- 우도라이온스크립총무이사(현)

가족사항 처 : 김춘화 자 : 김소영(제주대학교) 김소혜(제주전문대)  
김충범(제주전문대) 김충현(한림공고)

제주시 화북1동 1943-17

전화 사무실 : 22-2425, 50-7572, 50-7547  
자 택 : 21-1215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고 계 추

(하고수동 출신)

- 성선중학교
- 성선수산고등학교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반 수료
- 제주도농수산국장(현)
- 균정포장 수상

주소 : 제주시 노형동 1313-6 노형세기1차APT 609호

전화 : 064-42-7770 (자), 46-1637 (사)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김 순 두

(서천진동 출신)

- 연평초등 · 중학교      ○ 오현고등학교
- 제주교육대학교      ○ 한국방송대학교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제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 제주문화방송 아나운서실장, 편성국장, 보도국장
- 제주문화방송 창사30년 기획단장(현)

제주시 연동 313-23

전 화 (자) 064-46-5151

(사) 064-40-2751

핸드폰 011-693-6688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홍 대 수

(1945년 11월 1일생)

### 학 력

- 연평초등·중학교 졸업
- 오현고등학교 졸업
- 제주교육대학교 졸업

### 경 력

- 제주교육대학교 학생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중앙대의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지위법제정촉구 특별위원
- 제주시 교원연합회 대의원
- 오현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 감사
- 제주교육대학교 제9회 동창회 회장
- 제주교육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0지구 우도라이온스클럽 이사

직장 : 제주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주택 : 제주시 이도2동 1167-17

(전화 57-6490)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동 해 상 회

\* 어패류 도매업, 자갈치어시장 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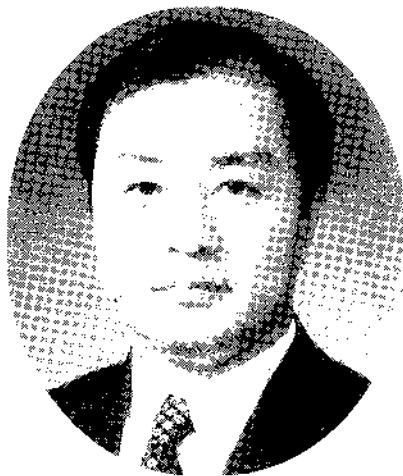
대 표 양 영 문

(하우목동 출신)

부산시 영도구 신선1동 188-29

☎ 246-0361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김 덕 민

(영일동 출신)

- 연평초등 · 중학교졸업      ○ 오현고등학교 졸업
- 제주대학교 졸업
- 삼성화재 제주지점장
- 삼성화재 부산본부 부장(현)
- 가족사항 처 : 임경숙   자 : 김현우, 김철우

주소 : 서울 도봉구 방학동 청구APT 109동 1006호  
전    화 (직) 051-461-8770  
         (자) 02-3491-4660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김 갑 민

(영일동 출신)

- 수원지방검찰청 근무
- 마산지방검찰청 근무
-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계장(현)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APT 106동 1602호

(051) 261-2420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서 울 제 책 사

대 표 이 희 성 (구. 박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216-28

TEL (자) 418-2366

(사) 244-4210, 3535

휴대폰 011-592-4210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辯護士 梁 承 富

제주시 이도2동 1773-1

전 화 : 53-6301, 6302번

FAX : 53-0 0 0 6번

자 택 : 53-6 3 0 3번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천진리사무소

이장운경식 개발위원장 양민언

역대이장: 초대 여달현, 2대 고순환

우도면 천진리 1784-4 전화 (064) 83-0569 FAX 83-1671



## 서광리사무소

이장 김승태 개발위원장 임봉순

역대이장: 초대 강순일, 2대 오종영, 3대 정만식

우도면 서광리 2173-1 전화 (064) 83-0044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풍요로운 오봉리건설 -



## 오봉리사무소

이장 고재수 개발위원장 윤복일  
역대이장 : 초대 강철석, 2대 고호수, 3대 한두영  
우도면 오봉리 1011 ~ 1 전화 (064) 83-0568



## 조일리사무소

이장 김영택 개발위원장 윤승웅  
역대이장 : 초대 한두경, 2대 김경찬, 3·4대 고창식, 5대 여완형  
전화 (064) 83-0570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서귀우도향우회

고문 윤창현 회장 고경오 부회장 신영훈

감사 우태진, 김재웅 총무 우철범

회원

윤금홍, 김보생, 고경권, 고창선, 고광웅,  
고유환, 고성훈, 이영만, 고근용, 김춘식,  
김철규, 강은호, 고승찬, 공철만

## 양석송

(상고수동 출신)

## 우도상회

삼천포시 선구동 18-79

TEL (0593) 33-4202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高 桂 花



(하고수동 출신)

- 演坪初等學校 卒業
- 釜山南星女子中高等學校 卒業
- 演坪初等學校 教師
- 在京牛島面民會 副會長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604-53

전화 : 832-7700



(서천진동 출신)

## 윤 회 택

한국방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교직에서 정년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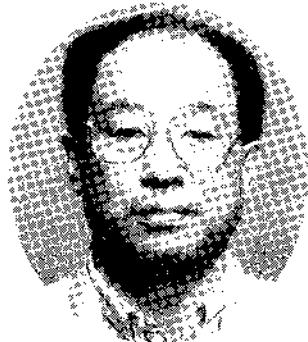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동 경동APT 104동 606호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明 寶 運 送

(海上·陸上 運送業)

代表 高 行 敦



(하우목동 출신)

釜山廣城市 中區 中央洞 1街 21-12  
(삼성빌딩 402호)

電 話 : (051) 256-6326 ~ 7  
휴 대 폰 : 011-560-3887  
F A X : (051) 256-6328  
呼 出 : 012-561-3887

## 身土不二 제주옥돔직매장

전화 한 통으로 제주천연의 청정해역에서  
갓잡은 싱싱한 옥돔의 맛을 즐기십시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은  
전화주문시 당일 도착

대표 양 순 길  
“양금주”

제주시 연동 279-7 (하와이관광호텔앞)

42-2868 · 012-696-5348

옥돔, 한지, 참조기,  
고등어, 젓갈류, 마른문어,  
갈치, 각종수산물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身土不二 제주옥돔직매장

하와이관광호텔 ·  
제주관광호텔 ·  
· 총전  
도수관광호텔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대표 고 형 우(계동)

잠수복전문제조업체

## 공 덕 상 사

### 취급 품목

잠수복, 수경, 오리발, 슈트,  
기타 잠수장비 일체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518 전화 94-7344

자택 : 제주시 삼도2동 1176-10 전화 57-4301



金 世 均

濟州第一中學校, 城山水高 製造科 卒業

東義大學校 中小企業大學院 修了

釜山專門大學 食品工學科 研究委員 (現)

富農冷凍食品株式會社 工場長 (理事) (現)

三進物商株式會社 保稅土 (現)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7 문화APT 416호

전화 248-6012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고 필 환

(서천진동 출신)

주식회사

동

진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709번지

(직) 463-0636

(자) 414-3724

## 統一産業



(항만하역·수출입통관·운송관련업)

대표 고 항 수

(상고수동 출신)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19-27

전화 (사) 051-469-0026 (7)

(자) 051-783-7224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신영구

(동천진동 출신)

## 수 산 업

삼천포시 서금동 2-3번지

TEL (0593) 33-9140

# 이창형

(비양동 출신)

## 유성산업주식회사

(총무부장)

부산시 남구 용회동 76-4 남경빌라 202

전화 622-6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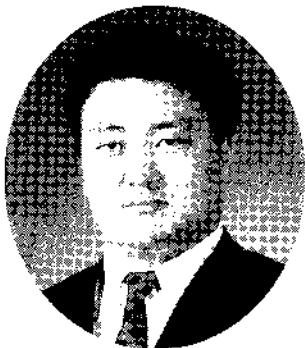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김 대 송

(서천진동 출신)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800-65

전화 : 414-2387



(1961년생 영일동출신)

## 한라통나무주택

(통나무주택전문)

대표 김동건

제주시 이도2동 1062-8번지

전화 { 사무실 : (064) 24-2141 ~ 2  
자택 : (064) 47-5359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윤석찬

(서천진동 출신)

### 경복호선주

북제주군 우도면 오봉리 (전흘동 거주)

전화 83-0141

핸드폰 011-691-8816

## 강환전

(삼양동 출신)

주소 : 삼천포시 서금동 54

TEL : (0593) 33-6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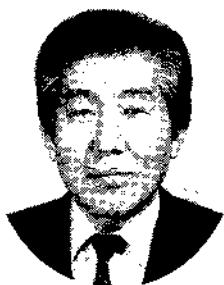
## 고정욱

(하고수동 출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절영 APT 209동 2003호

전화 : (051) 405-9517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演坪初等學校, 完島中學校 卒業
- 漢榮高等學校 卒業
- 現 영동세브란스병원 勤務
- 在京牛島面民會 副會長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1가 274

金 乃 桓

전화 : 928-6600



- 演坪初等學校, 演坪中學校 卒業
- 細花高等學校 卒業
- 不動產 事業
- 在京牛島面民會 副會長

韓 在 德

주소 : 서울 도봉구 쌍문2동 631

전화 993-2792



- 演坪初等學校, 演坪中學校 卒業
- 統營水產高等學校 卒業
- 現 現代重機事業所 勤務

주소 : 서울 강서구 방화1동 607-101

姜 斗 華

전화 663-4786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金 武 成

## 필 그린 產業

(넥타이, 스카프 製造業)

- 演坪初等學校, 釜山東洲中學校 卒業
- 釜山東亞高等學校 卒業

경기도 성남시 신흥3동 3137

전화 (0342) 734-2071

## 김 영 자

(영일동 출신)

삼천포시 서금동 145-5

TEL : (0593) 32-3047

## 김 정 남

(1948년생, 하우목동 출신)

제주시 이호1동 569-1

TEL : 43-6593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김 용 호

(상우목동 출신)

## 경 동 석 유

부산시 남구 용호1동 82-4  
(051) 621-2613

## 김 정 태

(상우목동 출신)

- 제주대학교 어로학부 졸업
- 동지상선 주식회사 근무

부산시 남구 용호동 일신크로바APT 102-1202



姜 光 一

- 演坪初等學校, 五賢中學校 卒業
- 濟州農業高等學校 卒業
- 釜山產業大學校 行政學科 卒業
- 釜山產業大學院 行政學科修了 碩士
- 서울女子商業高等學校 教師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361-37

전화 □ 자택 306-4946  
□ 학교 873-3614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원 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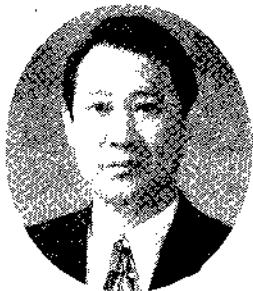


박 상 옥

\* 작업복 · 단체주문 환영 \*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2가 25

전화 417-2134



김 세 영

- 성산수고 졸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고급관리자) 수료
- 새마을운동 제주도지부 총무과장
- 제3대 우도향우회장('93)
- 내무부장관 표창장 수상

주소 : 제주시 연동 312-2 (도청내)

사무실 46-4001, FAX 46-0788

자 택 52-2742



康 永 喆  
(1954년생)

### 學 歷

- 연평초등학교 졸업
- 세화고등학교 졸업
- 연평중학교 졸업
- 제주전문대학 졸업

### 經 歷

- 1979~1984 대우중공업(주) 근무
- 1984~현재 제주은행 근무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孔 光 淚

(1955. 10. 5)

- 연평초등학교(30회) · 연평중학교(15회) 졸업
- 제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추자면 총무계장
- 구좌읍 총무계장
- 조천읍 사회계장
- 북군청 문화공보실 공보계장(현)
- 본적 : 우도면 연평리 102(조일리)
- 주소 : 구좌읍 세화리 1452



지도검사과장

채 종 익

##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

제주시 건입동 940-3 현대APT 104동 703호

사무실 ☎ 47-4101~7

자 택 ☎ 55-0188

## 삼화단란주점



高範煥

- 演坪初等學校 30回 卒業
- 演坪中學校 15回 卒業
- 濟州商業高等學校 20回 卒業
- 제1·2대 우도향우회장(91, 92)
- 제주운수 勤務

사무실 : 제주시 건입동 984-135  
전화 57-2993

자 택 : 제주시 화북1동 1946-10 화북아파트 507호  
전화 56-6906 삼화단란주점 56-0999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演坪初等學校，演坪中學校 卒業
- 三一工業社 社長(1級自動車整備業)

주소 : 서울 도봉구 미아3동 125의41

金辰鳳

전화

[자택] 989-8129

[공장] 293-3363

흑염소·개소주·토끼·오리  
각종동물제골·특수임가공  
신토불이각종농수산물농축액(헥기스)호박·포도

## 동문건강원

대표고석준

천명사주·궁합·택일  
사업상담·음양체결감정·작명

## 동문철학관

사회 한국음양연구회 중앙이사  
단체제주시지부  
지부장 고석준

제주동국민학교 서쪽 고려이비인후과옆  
전화 22-8738 · FAX 22-8738  
자택 58-0612

## 한국밧데리

대표 양장호

(자동차카센타)

제주시 오라2동 1189-1 (운동장 야구장 서쪽)

(사) 44-6775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김 성 진

(조일리 비양동 9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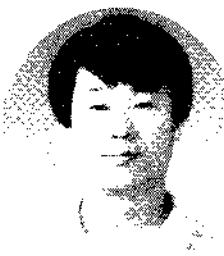
- 연평초등학교 30회 졸업
- 연평중학교 15회 졸업
- 제주농업고등학교 63회 졸업
- 주식회사 진성해운 상무이사

주소 : 제주시 도남동 70 수선화APT 가/606호

직장주소 : 제주시 전입동 984-133

전화

자 택 5 2 - 6 5 7 6  
직 장 2 2 - 3 2 8 8  
H · P 011-691-6576



이 영 훈

## 아 하 맞춤복 전문

양복, Y샤스, 호텔유니폼, 회사정복  
정비복, 중고등학교 교복, 각종 특수복

제주시 칠성로 동쪽 입구 ☎ 55-2212

자택 : 전입동 현대아파트 106동 704호

☎ 56-1756



尹 英 裕

근무처 : 제주도청 지방재정과  
제주시 연동 312-1  
☎ 40-1114 (교)

주 소 : 제주시 일도1동 113-1  
일도수선화아파트 가동  
103호 ☎ 52-7861

가족사항 : 妻 梁吉順, 1男1女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演坪初等學校 卒業
- 城山中高等學校 卒業
- 陸軍少領 轉役
- 서울 중화고등학교 教師
- 在京牛島面民會 顧問

高 德 煥

서울 중랑구 망우1동 염광APT  
9동 103호 ☎ 493-1107

## 채 회 수

(전흘동 출신)

- 연평초등 · 중학교 ○ 제주상업고등학교
- 제주경찰청 보안과 근무

우도면 오봉리 855 전화 25-1323

## 조 일 금 속

\* 스캔드스, 알미늄, 샷시, 잡화물, 유리 시공전문업체 \*

대 표 김 호 민

주 소 제주시 화북1동 1966-16  
(사) 58-5973 호출기 012-694-2779  
(자) 55-5928 핸드폰 011-693-5973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한 일 식당

대표 전 상우

제주시 일도1동 114 (동문시장내)  
전화 51-0323, 자택 58-5799



高 泰 英

본 적 : 우도면 친진리 1848

주 소 : 제주시 이도2동 405

영산홍주택 106동 107호

근무처 : 제주은행 전산부



金 治 珉

- 우도면 친진리 출신
- 오현고등학교 졸업
- 제주대학교 졸업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참사) 재직중

제주시 일도2동 신천지APT  
101동 508호 ☎ 56-1675

## 고 계 찬

(상고수동 출신)

## 수 산 업

삼천포시 동금동 526-2

TEL (0593) 32-9278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우 철 호

(전흘동 출신)

- 연평초등 · 중학교
- 제주제일고등학교
- 라곤다 호텔 근무

제주시 삼도1동 792-14  
전화 56-0097



## 김 용 민

(동천진동 출신)

- 연평초등, 중학교
- 성산수산고등학교
- 제주체신청 근무

제주시 화북1동 1967-26  
동아리주택 506호  
(직) 57-0100 (자) 57-8435

## 김 성 환

(동천진동 출신)

## 삼우공인중개사사무소

제주시청 정문 앞

(사) 58-3089  
(자) 53-2608

## 최 철 호

(바양동 출신)

## 신우전기 근무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227-4  
전화 (051) 756-3839

#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한 재 식

(비양동 출신)

- 연평초등 · 중학교
- 군산수산전문대학

부산시 남구 대연4동 1125-1  
전 화(051)625-2114

## 고 철 훈

(비양동 출신)

## 자 영 업

부산시 남구 용호동  
협진태양APT 4동 406호  
전 화(051)625-0575

## 고 헌 환

(서천진동 출신)

- 오현고등학교
- 제주대학교 법학과
- 남주개발주식회사

서귀포시 서홍동 397-116  
전 화 (사)39-3897  
(자)62-6109

## 김 현 민

(영일동 출신)

- 연평초등 · 중학교
- 세화고등학교
- 제주대학교 법학과
- 서귀포시청 기획감사실  
국제협력계장(현)

전화 (사) 39-5189  
(자) 32-9818

## ▣ 편찬위원회

고 문 : 신인홍, 우근민, 공희종, 우봉수,  
우봉호, 김경향, 고창보, 강기현, 김용관,  
김계환, 고용숙, 강상호, 정학준, 정찬영,  
오영종, 김항빈, 양풍도, 김완택, 김두영,  
김부대, 김항윤, 고계화, 오술생, 윤봉춘,  
이순국(무순)

명예위원장 : 고창도

위원장 : 김항구

부위원장 : 고명수(상임), 오영돈

총 무 : 고호수

위 원 : 양계영, 한두경, 강철석, 김경찬,  
여달현, 김준택, 고운팔, 강안근, 한두영,  
전상만, 윤국웅, 윤경식, 김재민, 고명찬,  
양순향, 고재수, 고악환, 양순규, 공승남,  
김석송, 윤승웅, 고이택, 윤석찬, 김승태,  
정만식, 고창식, 강순일, 김철수, 김항자,  
고혜동(무순)

## ▣ 지구별 추진위원회

### 1) 제주시지구

위원장 : 강영길

위 원 : 윤철영, 김용관, 양순길, 이휴성,  
김종학, 고계택, 김영국, 김경국, 고계동,  
고계환, 고경환, 정만화, 고수환, 강성보,  
김세영, 강영식, 강영철, 김치민, 김영수,  
한정우, 고범환, 부대만

### 2) 서귀포시, 남제주군지구

위원장 : 우태진

위 원 : 윤창현, 고광웅, 임봉순, 김재웅,

김용봉, 고근웅, 김현민, 김춘식, 강은호

### 3) 북제주군지구

위원장 : 고민환

위 원 : 강용길, 고창혁, 윤순삼, 김금용,  
윤채현

### 4) 서울지구

위원장 : 김두영

위 원 : 오영종, 고덕환, 김내환, 고철환,  
이안태, 윤석만, 전상구, 홍신길

### 5) 부산지구

위원장 : 김항빈

위 원 : 고창보, 정찬영, 강상호, 이광삼,  
이방현, 김도민, 김세균, 고치영

### 6) 경남지구

위원장 : 이창조

위 원 : 정성준, 윤석봉, 고일수, 김홍식,  
신영구

### 7) 경북지구

위원장 : 한재윤

위 원 : 김종근, 김평종, 이상율, 김계환

### 8) 전남지구

위원장 : 이기호

위 원 : 송상옥, 고정석

### 9) 일본지구

위원장 : 김용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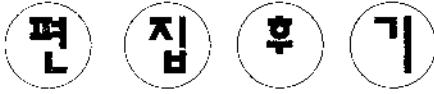
위 원 : 정찬흡, 김두환, 고정택, 김필환,  
오광성

 집필위원

(1993년 2월 집필당시, 가나다순)

성명	소속	직위	연구분야	학위	집필분야	비고
강창언 (姜彰彦)	제박주대 물관	연구원	미술사		역사유적	
고광민 (高光敏)	제박주대 물관	연구사	민속학	문학석사	어로민속	
고재환 (高在煥)	제주교 주교 대학	교수	국어학	문학박사	민요속담 방언	
고창석 (高昌錫)	제주 주 인 대학	교수	제주도사	문학석사	역사	
고충석 (高忠錫)	제주 주 법 대학	교수	행정이론	행정학 박사	행정	
김영돈 (金永敦)	제주 도	연구관	민속학	문학박사	해녀	전제주대 교수
김찬흘 (金粲治)	북교 제 육 주 청	교육장	향토사	학사	교육	
박서동 (朴瑞東)	태화인쇄사	대표			지명유래 사진	
서두옥 (徐斗玉)	제 해 주 양 대학	교수	어구공학	이학박사	어업	
신행철 (申幸喆)	제 인 주 문 대학	교수	자사 사회 연 학	사회학 박사	사업구조	
양영철 (梁永哲)	제 법 주 정 대학	교수	정책학	행정박사	개발행정	
양진건 (梁鎮健)	제 사 주 법 대학	조교수	교육사	교육학 박사	교육	
유철인 (庾喆仁)	제 인 주 문 대학	교수	문화 인류학	인류학 박사	가족	
윤정수 (尹正守)	제 해 주 양 대학	교수	해 지 양 학	이학박사	지형지질	
이기욱 (李起旭)	제 인 주 문 대학	교수	인류학	문학박사	종교	
이덕희 (李德姬)	DHM 화 와 이 환경계획연구소장	소장			주민참여	
이용렬 (李龍弼)	제 주 대 자 연 대학	교수	식 물 분 류 학	이학박사	동식물	
이청규 (李清圭)	영 남 대학	교수	고고학	박사	역사유적	
정공흔 (鄭公忻)	제 주 대학	교수	선박운용		선박교통	
현용준 (玄容駿)	제 주 대학	교수	구비문학	사회학 박사	무속시풍속	

---



## 편집후기

1992년 「牛島誌」를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시작한지 4년여가 흐른 지금, 편집후기를 쓴다.

고병수씨 주관아래 우도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시에서 편집위원장, 편집주간, 지역별 추진위원장 등을 뽑는 수순을 밟았다.

편집위원회는 목차 가편집을 한 후 집필위원을 선정, 편찬위·편집위·집필위가 보인에서 우도지 출판배경을 1차 설명하고, 다시 집필위원들을 우도에 초청 유치들과 2차 설명회를, 3차는 서울, 부산, 삼천포 등지에서 가졌다.

원고의뢰, 협찬의뢰, 원고수합 후 우도에서 공청회, 다른 지역은 원고를 복사해서 보냈다.

광고문안·사진접수, 협찬금 수급, 원고 1교·2교·3교정, 사진자료 수합, 현지촬영 4회, 마지막 5교정(4교), 다시 협찬, 편집위원 전체회의, 편집, 출판, 배부계획 수립, 출판기념회, 「牛島誌」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시작했는지, 후회도 하고, 그렇다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는 답답함을 참으며 살아온 4년여를 이 지면에 다 표현할 질은 없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뇌근후에 보여 사명감 하나로, 자료도 없고, 출판비도 없고, 맨주먹 싸나이들의 고뇌라니…

때로는 높은 음으로 다투고, 한잔 술에 「고향무정」이나 부르며 그나마 이 작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편찬위원·추진위원·편집위원 모두의 져력으로 둘린다.

고향에 사는 사람이 2천여, 제주시 3천2백, 부산, 서부경남, 서울 등지에 2천여명, 7천여 우도민의 정성을 모아 이 책을 만들었다.

지명유래 · 사진촬영을 해주신 태화인쇄사의 박서동 사장, 제자를 써 주신 창봉  
박동규님, 항공사진 · 해녀사진 등 자료를 주신 제민일보 서재철 국장, 3교 · 4교  
정을 맡아주신 제주대학의 양영길, 김동윤님, 협찬자 여러분, 지면으로나마 감사  
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잘못된 내용이나 미흡한 것은 다음에 올 편집진들에게 넘긴다.

1992년 6월에 쓴 「牛島誌」 발간 취지문을 편집후기에 실어 기록으로 남긴다.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 한다.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살아 온 우도의 근원을 알아보려 한다.

역사와 더불어, 선조들의 살아있는 숨결과 더불어. 그리하여 그 위대한 개척의 정신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려 한다.

빌레밟을 일구며 아버지의 한숨은 얼마나 깊었고, 흰 눈발 내리는 바탕에 들어 “호이, 호이” 어머니의 숨비질 소리에는 한많은 눈물이 또한 얼마나 고였던가…

…

죽어있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우리의 향토사를. 더불어 살아온 소섬 사람들의 끈적끈적한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牛島誌〉에는 담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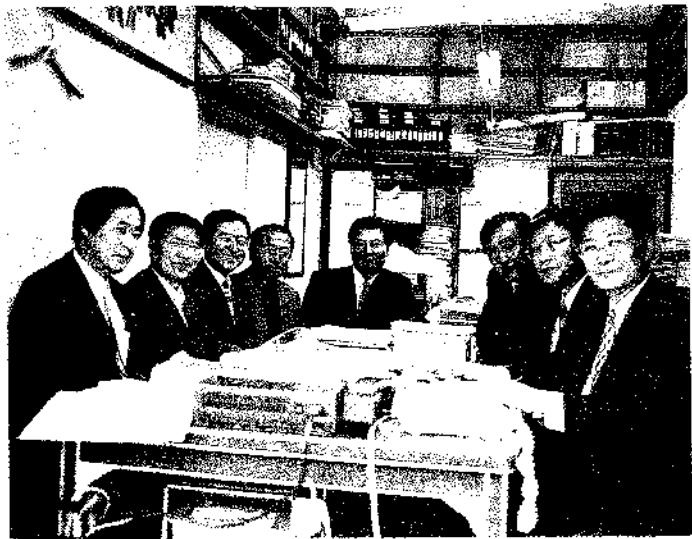
제주도의 가장 동쪽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섬, 제주 섬의 방파제가 되어 태평양의 거센 물결을 막아주는 우도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사를 한 권의 책에 담아 영원한 유산으로 후대들에게 남기려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며. 우리는 이 숙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역사앞에 떳떳한 우도 사람으로 남으려 한다.

1996년 11월

우도지 편집위원을 대신해서

편집주간 김 순 두



## ▣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이 순 형,

편집주간 : 김 순 두

간사(원고) : 김 항 근,      간사(광고) : 강 영 길

위원 : 채군배, 김익환, 고계추, 홍대수, 고영환, 김세도, 김덕민, 고범환,  
윤문유, 고희전

# 牛島誌

題字 朴 東 主

發 行 / 牛島誌編纂委員會

編 輯 / 牛島誌編輯委員會

印 刷 / 泰 和 印 刷 社

發行日 / 1996年 11月 日

〈非賣品〉

